



열일곱번째 이야기

뜻밖의 선물

[친밀하심을 따라 ⑪ 선교사 케어팀]



여러분은 ‘선교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희생’과 ‘기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선교사들은 당연히 개인적인 삶이나 자녀 교육 등을 희생해야 하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곳의 현지인 대부분이 그들이 섬겨왔던 우상을 버리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신실한 주의 종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로 그렇게 간단하거나 늘 좋은 결과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교사님들은 좌절하고, 과연 자신이 선교사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선교사님들을 어렵게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 여러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주님의 용사인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돕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 모양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사역에 관심이 있는 BEE 가족들이 모여 ‘선교사 케어팀’을 올해 초에 조직했습니다. Online으로 모여 회비와 섬길 방법 등을 의논했고,

전임 선교사님들의 생일과 현지 파송 선교사님의 부모님들에게 어버이날 즈음에 작은 선물과 손편지로 섬기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선교사 케어팀 사역의 첫해이니 작은 섬김으로 시작하고 차차 사역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일 선물을 받으신 선교사님들, 어버이날 자신들은 선교지에 있지만 선교사 케어팀이 작은 선물과 손편지를 보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 선교사님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BEE 가족 모두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신동준 선교사 어머니 이재호(82세) 여사



어버이날 즈음에 택배로 선물을 받았습니니다. 발송인이 낯선 이름이어서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들 소식도 자주 듣지 못하는데 소속 선교단체인 BEE에서

저를 기억하고 어버이날 선물로 오메가-3를 보냈더군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어려웠던 시절 결핵으로 고생하던 때에 어디서 구한 미군의 영양제를 먹으며 건강을 회복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그것도 오메가-3였지요, 마음이 담긴 선물에 옛날 생각도 나고 더욱 특별해집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까지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같이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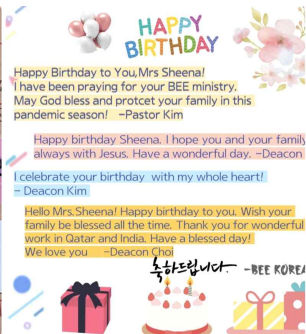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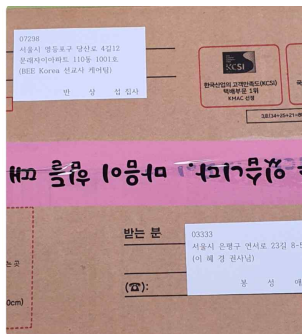
▶ 특별한 선물.... 일본에서 나문채 선교사

올해 해외 사역 본부에서 선교사 케어팀을 통해 선교사와 가족들의 생일 등 특별한 날에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음을 전해주기까지 선물을 고르고, 보내는 모든 과정에서 애쓰셨던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본은 5월 둘째 일요일이 어머니날인데 5월이 시작되자 일본 친구들이 어머니께 드릴 카네이션 꽃다발을 주문하고,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올해 어버이날도 연로하신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하고 선교지에서 안부 전화를 드려야 하나 하고 죄송스러움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때 내 마음을 아신 듯 BEE 선교 본부에서 나를 대신하여 어버이날 선물을 부모님 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드시고 싶어 하셨던 고단백 바다장어구이와 마음이 담긴 편지는 감동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특별한 선물을 받고 무척 기뻐했다고 하시며, “이렇게까지 마음 써 주시다니 정말 고맙고, 고맙다”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나 역시 기뻐했습니다. 내가 못 한 효도를 BEE 공동체가 해 주셨구나! 선교사의 마음과 상황을 공감하며 이렇게 부모님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주신 선교사 케어팀의 수고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오늘도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글쓴이 한숙영 권사 BEE Korea 해외사역부 담당]

[정리: 이경주 편집: 최선]

선교지 Indonesia

[전통 놀이-황소 경주(Karapan Sapi)]

마두 라 종족 문화인 Karapan sapi는 인도네시아 마두 라 섬에서 열리는 전통적인 황소 경주 축제로 매년 8월이나 9월에 열린다. 이어서 9월이나 10월 말에 결승전을 위해 다시 경쟁한다. 일반적으로 결승전은 Pamekasan에서 개최되며 대통령 트로피를 놓고 경쟁하나 현재는 주지사 트로피로 바뀌었다. 마두 라 섬 사람들이 일상적인 문화, 스포츠 또는 전통 게임의 한 유형으로 경주에서 한 쌍의 소 사이에 기수가 서서 한 쌍의 소를 제어하며 나무 수레를 당긴다. 레이스 트랙의 길이는 약 100m이고, 레이스는 약 10초에서 1분 정도 지속한다.

BEE 소식

- 2021년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고 이웃과도 그 친밀함을 나누는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 매일 아침 8:00 시작! BEE 선교사역을 위한 중보 ‘5분 띠기도’, 8시간, 96명의 기도 용사들이 기도 띠를 만들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3. 매주 토요일 6:30, 서빙고 비전홀과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BEE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4. 2021 BEE Korea 여름방학 특강 개설! 말씀과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전도와 제자 양육2, 고린도전서,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 전달]
5. 7월 3일(토) 'All & One'이 있습니다. BEE Korea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비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BEE 가족이 서로 감사하며 위로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